

다니엘서 - 제157번

다니엘서에 나타난 고레스의 예언적 상징성 해석

Jeff Pippenger

2024-03-25

10장 1절에서는 고레스 왕 제3년이었다고 알려지지만, 1장에서는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만 살았거나 계속하였다고 알려진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의 원년까지 계속 있었다. 다니엘 1:21.

키루스는 2년 동안 사실상 메대 사람 다리우스와 공동 통치했으므로, 이는 그의 3년째였지만 동시에 그의 1년째이기도 했다.

바사 왕 고레스 제삼년에 벨드사살이라 불리운 다니엘에게 한 일이 나타났는데, 그 일은 참되나 정한 때는 오래 걸리는 것이었다. 그가 그 일을 깨달았고 그 환상을 이해하였다. 다니엘 10:1.

예언적으로 고레스는 다니엘의 첫 번째와 마지막 환상에서 소개된다. 앞선 글에서 이미 제시했듯이, 다니엘서 1장은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를 대표한다. 첫째 천사가 예언에서 식별될 때, 그것은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모든 예언적 특성을 지닌다. 첫째 천사에 나타난 영원한 복음의 세 단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이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바벨론의 음식을 거절하고 채식하는 자로 남기를 택하였다. 이어진 가시적인 시험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음식을 먹은 자들과 대조되는 그들의 건강한 용모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삼 년 후,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보다 열 배나 더 지혜로운 자들임을 발견하였을 때,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영원한 복음의 세 단계는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에서도, 마지막 때에 봉인이 풀린 빛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들을 지식의 증가가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며 연단하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다니엘서의 첫 장에서도 마지막 장과 마찬가지로, 세 천사를 모두 포함하는 첫째 천사의 세 단계가 드러난다. 첫 장이 첫째 천사의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2장은 요한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를 나타내며, 거기에서는 1장의 세 단계 중 두 번째 시험에서 그랬던 것처럼, 짐승의 형상이나 그리스도의 형상이냐를 가르는 시험이 제시된다.

다니엘서 1장과 2장이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와 둘째 천사를 표상하므로, 3장과 두라 평지에서의 시험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경고를 담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나타낸다. 다니엘서 1장에서는 고레스의 원년이 언급되고,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인 10장에서는 고레스의 제3년으로 나타나지만, 다니엘이 고레스의 원년까지밖에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그 '제3년'이 곧 그의 '원년'임을 우리는 안다.

그러므로 사이러스는 세 해를 포함하는 첫째 해의 상징이다. 그는 첫째 천사의 메시지의 상징이다. 사이러스의 첫째 해는 다니엘의 첫 번째 환상의 마지막 절에 언급되고, 이어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의 첫 절에서도 다시 언급된다. 사이러스의 예언적 상징성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며, 우리는 먼저 그가 첫째 천사의 메시지를 대표한다고 확인하고 있다. 이는 다니엘이 그의 셋째 해를 첫째 해로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예언적으로 확인될 수 있으며, 더 중요하게는 그가 선포한 첫 번째 칙령에 의해 확인된다.

다니엘 10장에서 가브리엘이 바사의 왕들과 더불어 벌이고 있던 투쟁은, 고레스를 마침내 그가 세 가지 칙령 가운데 첫 번째 것을 끝까지 실행하여 선포하도록 이끄는 일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 칙령들은 유대인들이 돌아와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셋째 칙령은 이천삼백 년 예언의 시작을 표시하였으며, 그 예언은 셋째 천사가 1844년 10월 22일에 도래하였을 때 끝났다. 셋째 칙령은 셋째 천사를 표상하였고, 그러므로 고레스의 첫째 칙령은 1798년에 첫째 천사가 도래한 것을 표상하였다. 고레스는 첫째 천사를 대표하며, 이러한 이유로 다니엘서에서 그의 첫째 해는 삼 년을 표상하였다.

그러므로 고레스는 '마지막 때'를 상징한다. 첫째 천사(고레스)가 1798년에 나타났을 때 '마지막 때'가 도래했고 다니엘서의 봉인이 풀렸다. '고레스'라는 이름은 '태양'을 뜻하는 고대 페르시아어 'Kuruš'와 '왕좌'를 의미하는 엘람어 'kursh'의 결합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겨지며, 왕권이나 군주권과의 연관성을 시사한다. 이사야도 이러한 고레스의 특성을 다루고 있다.

고레스에 관하여 이르시되, '그는 나의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뜻을 이룰 것이다.' 그는 예루살렘에게는 '네가 건축될지니라' 하고, 성전에는 '네 기초가 놓일지니라'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부음 받은 자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며 그 앞에 나라들을 굴복하게 하며,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두팍문을 열게 하리니, 문들이 닫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앞서 가며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늦문을 부수며 쇠뿔장을 끊으리라. 내가 네게 흑암 중의 보물과 은밀한 곳에 감추어진 재물을 주리니, 이는 네가 네 이름으로 너를 부르는 나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 종 야곱과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너를 네 이름으로 불렀고, 네가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고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네가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네게 띠를 띠웠나니, 해 돋는 곳에서부터 서쪽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4:28-45:6.

고레스는 주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였고, 예루살렘을 세우며 성전의 기초를 놓는 하나님의 '목자'라고 불렸기에 그리스도를 예표했다. 그는 닫힌 문들을 여는 이로 나타나는데, 그리스도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신 것과 같다. 또 고레스에게는 '흑암 중의 보물과 은밀한 곳에 감추어진 재물'이 주어진다. 고레스는 개혁 운동의 선상에서 여러 이정표를 성취한다.

그는 첫째 천사가 도착하고, 다니엘서의 인봉이 풀리며, "어두운 데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에서 나오는 지식의 증가가 있게 되는 "끝의 때"를 표시한다. 그 "어두운 데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이 "놓여지는" "기초"와 "세워질" "성전"을 이룬다.

고레스로 예표된 그리스도는 주의 "기름부음 받은 자"인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침례 때 기름부음을 받으신 것과 같다. 그러므로 고레스는 첫째 천사의 도착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기름부음을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내려올 때 첫째 천사에게 능력을 더해 주는 둘째 천사이기도 하다. 1844년 10월 22일 그리스도께서는 닫혀 있던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곧 "게이트"를 여셨다. 고레스는 또한 셋째 천사의 도착을 표시한다.

사이러스는 첫째 천사이며, 첫째 천사는 세 천사의 모든 요소를 지니고 있다. 사이러스는 첫째 천사가 도래한 1798년의 끝의 때이다. 사이러스는 첫째 천사의 메시지에 권능이 부여되었던(기름부음 받은) 1840년 8월 11일을 대표한다. 그는 1842년 5월에 1843년 도표의 제작으로 나타났듯이 기초를 놓는 일을 대표한다. 그는 또한 1844년 4월 19일 첫 실망 때 두 부류가 분리된 것으로 나타났듯이 성전 건축을 대표하며, 1844년 10월 22일의 큰 실망에서의 두 번째 분리도 대표한다.

밀러주의자들의 개혁 운동의 모든 이정표는 고레스에 의해 예표되었으며, 그러므로 그 이정표들은 또한 십사만 사천의 운동의 이정표들을 예표한다. 밀러주의 운동에 앞서, 그리스도께서 밀러주의자들의 역사에 앞서 나타나리라고 지적하신 표징들이 나타났다.

예언은 그리스도의 오심의 방식과 목적을 예고할 뿐 아니라, 그 오심이 가까웠음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표징들도 제시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해와 달과 별들에 징조가 있으리라." 누가복음 21:25.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마가복음 13:24-26. 계시자는 재림에 앞서 나타날 첫 표징을 이렇게 묘사한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는 털로 짠 붉은 베옷같이 검게 되었으며, 달은 피 같이 되었다." 요한계시록 6:12.

이러한 징조들은 19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목격되었다. 이 예언이 성취되어 1755년에 기록에 남아 있는 가장 끔찍한 지진이 발생했다. 대쟁투, 304.

재림을 알리는 징조들은 1798년 직전인 1755년에 시작되었다. 1798년은 영적 바벨론에서의 영적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종결된 해였는데, 화이트 자매는 이것이 문자적 바벨론에서의 문자적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로 예표되었다고 가르친다. 그 포로 생활은 칠십 년의 포로 기간이 끝날 때, 고레스가 열려 있던 성문으로 들어가 바벨론을 함락하고 벨사살을 죽였을 때 종결되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신성한 계획을 완수해 나갈 자유를 누리고 있다. 수세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자유가 제한되는 고통을 당했다. 복음의 순수한 선포는 금지되었고, 인간의 명령을 감히 거역한 이들에게는 가장 혹독한 형벌이 가해졌다. 그 결과, 주님의 위대한 도덕적 포도원은 거의 전적으로 경작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박탈당했다. 오류와 미신의 어둠이 참된 종교에 대한 지식을 말살하려 위협하였다. 지상의 하나님의 교회는 이 길고도 가차 없는 박해의 기간 동안, 포로기 바빌론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참으로 포로 상태에 있었다. 선지자와 왕들, 714.

바벨론의 칠십 년의 끝은 1798년을 예표했고, 1798년에 앞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징조들이 있었다.

"바벨론 성벽 앞에 고레스의 군대가 출현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포로 생활에서의 해방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리는 표징이었다. 고레스가 태어나기 한 세기 이상 전에, 그는 영감으로 이름까지 언급되었고, 그가 바벨론 성을 기습적으로 함락시키고 포로된 자손들의 해방을 위한 길을 예비하는 실제 일을 하게 될 것에 대한 기록이 남겨졌다." 선지자와 왕들, 551.

고레스 역시 1798년에 앞서 나타난 표징들을 예표하였다. 역사가들은 다리오와 고레스의 통치에 대하여 다소 अस्पष्ट하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다. 메대-바사 제국은 바벨론 제국의 뒤를 이었으며, 메대-바사의 첫 번째 왕은 다리오였으나, 벨사살의 마지막 잔치가 있던 밤 바벨론을 함락한 장군은 그의 조카 고레스였다. 고레스와 다리오는 둘 다 칠십 년 포로 생활의 끝 시기를 예표하는데, 그것은 1798년에 있는 마지막 때를 나타내며, 또한 1989년에 있는 마지막 때도 예표한다.

모세의 역사에서 끝의 때는 아론과 모세의 출생으로 표시되었는데, 두 사람의 출생은 서로 세 해 차이가 있었다. 그 역사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가장 완전하게 예표했고, 그 역사에서의 끝의 때는 요한의 출생과 여섯 달 뒤 그의 사촌 예수의 출생으로 표시되었다. 끝의 때에는 두 개의 이정표가 있으며, 다리오와 고레스는 모두 칠십 년 포로 생활의 끝을 표시하는데, 그것은 1,260년 포로 생활의 끝을 예표했다. 1798년에 교황권의 짐승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고, 이듬해에는 그 짐승을 타고 그 위에서 군림하던 자가 죽었다. 1989년에는 레이건과 부시 1세가 모두 대통령이었다.

고레스는 다가올 종말의 때를 알리는 표징들을 표시하고, 종말의 때 자체도 지목한다. 그는 지식의 증가와 천사가 내려올 때 첫째 기별에 권능이 더해지는 것을 표시하며, 이어 기초를 놓는 일, 곧 성전을 건축하는 사역이 착수되는 것을 표시하고,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자기 성전에 오실 때 셋째 천사의 도래도 표시한다.

바사 왕 고레스 제삼년에 그 이름이 벨드사살이라 불리던 다니엘에게 한 일이 나타났으니, 그 일은 참되었으나 정해진 기한은 길었더라. 그가 그 일을 깨달았고 그 환상에 대한 깨달음도 있었더라. 그때에 나 다니엘은 온전한 세 이레 동안 애통하였느니라.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였고 고기나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아니하였으며 또 기름도 전혀 바르지 아니하였으니 온전한 세 이레가 차기까지 그리하였더라. 첫째 달 이십사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 가에 있었더라. 다니엘 10:1-4.

고레스와 벨드사살이라는 상징은 마지막 때의 특정한 예언적 역사를 나타낸다. 벨드사살의 상징은, 그 상징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언약 백성의 마지막 세대인 14만 4천 명임을 알려준다. 그들은 고레스로 상징되는 예언적 역사 속에 놓이는데, 고레스는 1798년, 1989년, 2001년 9월 11일이라는 모든 이정표와 그에 앞선 역사 전체를 대표한다. 그는 또한 2020년 7월 18일의 실망과, 머지않아 미국에 올 일요일법까지도 대표한다.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이 예언적으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판별하는 열쇠는, 다니엘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다.

1절에서 다니엘(벨드사살)은 '일'과 '환상' 둘 다를 이해하고 있다. '일'은 '말씀'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dabar'이며, 가브리엘이 2,520년('일곱 때')의 'chazon' 환상을 나타내는 데 사용한다. 다니엘이 이해한 1절의 '환상'은 2,300년의 'mareh' 환상이다. 말세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1989년 끝의 때에 '일곱 때'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2001년 9월 11일 이후에야 '일곱 때'를 이해하게 되었으므로, 최종 예언 운동을 대표하는 다니엘이 '일'과 '환상' 둘 다를 이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니엘은 2001년 9월 11일 이후 고레스가 대표하는 예언적 개혁 운동의 때에 있어야 한다.

다니엘은 이십일일 동안의 애통의 기간 가운데 있는 것으로 제시된다. 애통하던 그 "때에" 다니엘은 그 "일"을 깨닫게 되었고, 또한 그 "이상"을 이해하였다. 그 "일"이 나타내는 진리는 애통의 날들에 다니엘에게 계시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개혁의 노선들에서 한밤중 부르짖음 직전에 "애통하는" 자들로 표상된다. 그 애통은 개선 입성 직전에 나사로를 위하여 슬퍼하던 마르다와 마리아로 표상된다. 그것은 또한 예레미야에 의하여 표현된 바, 밀러 운동의 역사에서 첫 번째 실망 이후의 낙담으로 예증되었다.

주님의 말씀을 찾아 내가 그것을 먹었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불림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조롱하는 자들의 모임에 앉지도 않았고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의 손 때문에 나는 홀로 앉아 있었으니, 주님께서 나를 분노로 가득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왜 나의 고통은 끝이 없으며, 나의 상처는 낫지 않는 불치의 상처입니까? 주님께서 내게 완전히 거짓말하는 자 같으시며, 말라 버리는 물과 같으시겠습니까? 예레미야 15:16-18.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소돔과 애굽의 시민들이 두 증인의 죽음을 두고 "기뻐한" 것과 달리, 예레미야는 "기뻐하지" 않았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애통한다는 뜻이다. 벨드사살의 애통은 두 증인의 죽음과 관련된 애통을 가리킨다. 2020년 7월 18일과 2020년 11월 3일에 땅의 짐승의 참된 개신교 뿔과 공화당의 뿔들에 속한 두 증인이 우리 주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인 소돔과 애굽의 거리에서 죽임을 당했다.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의 제자들은 애통하기 시작했다. 그 두 증인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모세와 엘리야로 상징되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미가엘로 지칭하는 언급이 다섯 번 있다. 다니엘서에 세 번, 유다서에 한 번, 요한계시록에 한 번이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10장에서는 미가엘이 13절과 21절에 두 번 언급되고, 이어 12장 1절에서도 다시 언급된다. 그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확인된다. 유다서에서는 미가엘이 모세를 부활시키는 이로 지목되며,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그 모세가 거리에서 죽어 있는 증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기억나게 하려 하노니, 너희가 일찍이 이것을 알았을지라도, 주께서는 애굽 땅에서 백성을 구원하여 내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나중에 멸하셨다. 또한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흑암 아래 영원한 사슬로 가두어 두셨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성읍들도 이와 같이 음행에 자신을 내어주고 다른 육체를 좇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본보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이 더러운 꿈꾸는 자들도 육체를 더럽히며 권세를 멸시하고 존귀한 존재들을 모독한다.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은 마귀와 다투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논쟁할 때, 그를 대적하여 모욕하는 고발을 감히 하지 않고 다만 말하기를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하였다. 유다서 5-9절.

유다서에서, 소돔과 애굽, 곧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죽임을 당하는 큰 성을 상징하는 맥락 속에서, 미가엘로 대표되는 그리스도는 모세의 시체를 부활시킨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상징적인 삼일 반 동안 죽어 있었고, 미가엘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벨드사살의 애도 기간이 끝난다. 줄에 줄을 더하여 보면,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4절은 미가엘이 두 증인을 부활시킬 때 끝나는 애도 기간을 가리킨다.

이 연구는 다음 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택하여 그리스도께 그의 사자로 보내시고, 하늘의 빛으로 그를 영화롭게 하며, 다가올 고난에 관하여 그와 교통하게 하셨다. 이는 그들이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았고, 인간의 슬픔과 고통을 겪어 보았으며, 예수께서 지상에서 사시는 동안 당하신 시련에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위치에서 그리스도를 대표했으며, 그의 사역도 어느 정도 구주의 사역과 비슷했다. 모세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서 그와 교통하고 그의 지시를 따랐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모인 모든 무리 가운데 이 둘이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기에 가장 합당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불신앙에 격분한 모세가 분노하여 반석을 쳐 그들이 구하던 물을 내어 주었을 때, 그는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렸다. 모세의 마음은 이스라엘의 배은망덕과 패역함에 사로잡혀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라고 명하신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지 못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자주 이스라엘 자손들을 막다른 지경으로 이끄신 다음, 그들이 큰 궁핍에 처했을 때 그분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에 대한 그분의 특별한 돌보심을 깨닫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는 것이었다. 그러나 모세는 마음의 자연스러운 충동에 굴복하여,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에게 돌렸고, 사탄의 권세 아래 떨어졌으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다. 만일 모세가 끝까지 굳건히 섰더라면, 주께서는 그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신 다음,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셨을 것이다.

이와 같이 모세는 죽음을 겪었으나,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의 몸이 썩음을 보기도 전에 그를 부활시키셨다. 사탄은 모세의 몸을 두고 미가엘과 다투며 그것이 자기의 정당한 차지라고 주장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길 수 없었고, 부활하여 영화롭게 된 몸을 입은 모세는 하늘의 궁정으로 들려 올라갔으며, 이제는 아버지께로부터 그의 아들을 모시도록 사명을 받은 영예로운 두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그토록 잠에 사로잡히도록 자신을 내버려 둠으로써 제자들은 하늘의 사자들과 영광을 입으신 구속주 사이에 오간 대화를 놓쳐 버렸다. 그러나 그들이 깊은 잠에서 갑자기 깨어 눈앞의 장엄한 광경을 보자, 황홀함과 경외로 가득 찼다. 사랑하는 주님의 빛나는 형상을 바라보자, 그분을 두르고 태양과 같은 광선을 내뿜는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을 달리 견딜 수 없어 그들은 손으로 눈을 가려야 했다. 잠시 동안 제자들은 눈앞에서 영광을 입고 높임을 받으시는 주님을 보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들로 알아보는 찬란한 존재들에게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을 보았다." 예언의 영, 제2권, 329, 330.